

# 심판과 실패의 망대를 구원의 망대로 바꾼 70인 제자 스바나 -복음으로 여는 스바나- 스바나 3:17, 마태복음 1:21-23

정운돈 목사님

\* **눅: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 **마:21-2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계 237 나라 선교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세계사, 선교를 위해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제목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미션을 발견하며 우리 교회의 미션을 발견하며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가야 할 절대도전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이판 현지에 갔더니 현지인들이 생각보다 순수하고 놀랍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50명 이상 영접운동이 일어났다. 어떤 분이 영접을 하는데 같이 사진 찍기가 어려운 일인데도 사진을 많이 찍었다. 류목사님이 전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맞다. 류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한다. '나도 전도현장 가야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취된다.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선교를 해라.' 이것이 실상이다.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미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 걸고 도전해야 한다. 이것이 생명 걸 헌신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성취되는 것이 없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나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스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스바나서는 스바나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스바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 즉,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라는 뜻이다. 스바나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으로 왕족이었다. 그런데 스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 스바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지도자들과 타협하고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스바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전도자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스바나서의 앞부분에서는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과 징계를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 우리들 또한 사탄과 세상에 속아 불신자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다.

**1. 첫 번째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인은 저주와 운명, 시주, 팔자, 사탄이 역사한다. 그런데 복음이 있는 곳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된다. 돌아보면 다 응답이다. 이것이 언약의 여정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재앙과 저주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게 화가 나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바나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화가 나신 이유를 알 수 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① 남아 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②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③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④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종교혼합) 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⑥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① 첫 번째로 1장 4절에 보면 ‘남아 있는 바알을 멸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알은 오래된 우상이었다. 유다 백성들은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뿌리 깊은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조금씩 치료해 주실 것이다.

② 두 번째로 또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그마림’이란 이름의 의미는 ‘우상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마림’이란, 히브리어로 ‘카마르’, ‘뜨거워지다’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즉, ‘그마림’이란 뜨겁게 날뛰며 우상을 숭배했던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도 바로 그리스도이다.

③ 1장 5절에 나온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점쟁이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④ 네 번째로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호와께도, 말감에도 맹세하는 종교혼합주의자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⑤ 다섯 번째로 1장 6절에 기록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⑥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위에서 말씀한 6가지의 사람들의 행위와 불신앙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들의 사명과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이어서 스바냐서 1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장 4절부터 15절까지는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모압, 암몬, 구스, 앓수르의 니느웨 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237 전도와 선교가 중요한 것이다. 스바냐가 ‘너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혼자라도 복음을 깨닫고 주변까지 다 살려라’라고 하는 것이다. 스바냐는 70인 제자의 응답을 붙잡았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으로는 챗GPT 등의 자동번역자막과 통역을 통해서 70언어로 우리 교회 강단말씀이 통역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 2. 두 번째에서는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첫 째로 하나님께서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그 방법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와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우리들이 사는 방법은 ‘모이는 것’이다. 다락방과 미션홈과 지교회와 예배와 각종 훈련과 WRC에 그래서 모여야 하겠다.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된다.

(2) 두 번째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말, 행동, 모든 면에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해야 한다. 흠과 티가 없도록 영육 간에 보전하라고 하셨다. 거기에 도전해야 한다.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다.

(3)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때에’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스바냐 3장 9절이다.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 때’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들과 전도대상자들에게 올 줄 믿는다. ‘이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날이 온다.

(4) 3장 11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 날에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날까지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락방과 지교회를 지속해야 하겠다.

(5) 3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회복지와 NGO 다문화복지까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스바냐 3장 12절을 보겠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장애인, 노인, 다문화)을 네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한다.

(6) 3장 13절에 보면 “남은 자”, ‘렘넌트’들에게 누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 스바냐 3장 13절을 함께 읽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7) 스바냐 3장 17절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다. 이 요절은 유명한 복음성가의 가사로 사용된 구절이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8) 마지막으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천하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것이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 후대들이 받을 응답이다.

결론으로 심판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를 ‘여호와와 구원의 망대’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를 적용하면서 스바냐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다.

1. 첫 번째는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들이었다. 다락방이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복음을 이해시켜주는 현장이다. 다락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현장이다. 다락방 현장은 영접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생명의 망대이다.

2. 두 번째는 팀사역이다. 팀사역에는 팀사역과 팀전도가 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항상 팀을 이루어 전도현장에 가셨다. 그래서 팀형성이 중요하다. 이 때 많은 만남과 전도의 문이 열리고 지속할 수 있다. 팀전도를 통하여 현장에 가면 영적인 질문과 대화와 상담을 하게 된다. 이것이 팀사역이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 팀도 팀사역을 통하여 제자들을 찾아내었고 그들을 현장의 제자로 세웠다. 영적인 대화와 영적인 상담이 팀사역이다.

3. 세 번째는 미션홈이다. 미션홈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과 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가정과 가문이 미션홈이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도 대표적인 미션홈가정이었다. 그리고 미션홈이란, 제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오직 전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성도가 바로 미션홈 제자이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현장을 미션홈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4. 네 번째는 전문사역이다.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전도의 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사역이 전문사역이다. 나의 주업과 부업을 바꾼 산업인들이 전문사역자이다. 이 분들이 현장에 70 망대를 세우기 가장 좋은 전도자들이다.

5. 다섯 번째는 지교회이다. 지교회란, 직장, 학교, 지역 등 다양한 현장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모임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지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의 도시를 대표하는 개교회로 발전하였다.

이 다섯 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사탄의 울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개인과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70 현장에 이 5가지 구원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 ‘생명 건 도전’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스바냐처럼 칭찬과 명성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이퀵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절대망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바냐 선지자가 전도와 선교의 절대망대, 구원의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그러한 70인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